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이행 : 그 기회와 한계*

권상철** · 박경환***

Transition from 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s) t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Its Opportunities and Limits*

Kwon, Sangcheol** · Park, Kyonghwan***

요약 : 오늘날 전세계적 양극화가 다양한 스케일에서 심화되고 있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아, 질병, 환경파괴, 난민 등의 문제는 보다 복잡한 지리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문제처럼 보이지만, 유럽 식민주의 이후의 지리적 상호연결성이 파생해 온 역사적 결과이다. 이런 측면에서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온 국제개발협력은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에 기여해 왔지만, 이런 과정에는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보다 복잡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특히, 2015년에는 2000년에 시작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대신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새롭게 수립됨에 따라, 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국제 사회의 노력과 전략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SDGs는 훨씬 폭넓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지만 동시에 많은 한계와 난점도 갖고 있다.

주요어 : 새천년개발목표, 지속가능개발목표, 개발,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지리적 상호연결성

Abstract : Global polarization at different scales has been more intensified than ever before. So, more complicated geographies are associated with global poverty and inequality, and their subsequent problems such as famine, disease,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asylum seekers. These problems are apparently confined to specific countries and regions. However, they are a consequence of historical-geographic (post)colonial interconnectedness. In this sense, since the early 1960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resolve or alleviate them. Especially, in 2015,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s) project is finishe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are newly set up as a global project to end human poverty. It is assumed that donor's IDC to accomplish SDGs will be more complicatedly implemented because SDGs contain more expanded and diversified forms of project targets than before. They are both possibilities and limits in the sense of development geography.

Key Words : development, 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geographic interconnectedness

1. 서론

오늘날 전세계적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는 빈곤, 기아, 질병 등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그 지리적 양상 또한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의 빈곤 현실은 대략 다음과 같다(<http://data.worldbank.org>). 2012년 현재 세계 인구의 절

반에 육박하는 3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2.5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루 소득이 1.25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극빈층 인구는 10억 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10억 명에 달하는 아동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하루에 22,000명의 아동들이 빈곤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또한, 8억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깨끗한 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고 위생 시설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80만 명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3652)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 교수(Professor, Geography Education Major, Jeju National University) (kwonsc@jeju.ac.kr)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kpark3@gmail.com)

의 인구가 (또는 매일 2,300명의 인구가) 설사와 같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17억 명에 달하는 5세 미만의 아동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인해 발육부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의 대부분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지리적 양상(패턴)을 갖는 지리적 현상이 분명하며, 지리적 설명을 필요로 하는 그야말로 지리적 관심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빈곤과 불평등의 지리는 분명 최근 수십 년 동안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의 경제적, 정치적 권한과 책임이 민간으로 양도 되는데 영향을 끼쳐 온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빈곤과 불평등의 지리적 연원은 1970년대 이후에 제조업 부문의 저임금의 비숙련 노동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는 신국제노동분업(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NIDL)으로 소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난 많은 신생독립국들이 그 이전의 식민 지배국이었던 국가들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소급할 수 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전후의 경제적 종속 관계는 19세기 중반부터 본격화 되었던 유럽의 2차 식민주의 시기 이후 식민지가 원료 공급과 공산품 시장으로서 기능했던 구국제노동분업(Old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OIDL)으로 소급할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빈곤과 불평등의 지리적 현실은, 개발도상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19세기 이후 유럽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전쟁, 탈식민화 이후의 경제적 종속,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라는 ‘지리적 상호연결성(geographic interconnectedness)’의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속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극심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의 흐름에서 고립, 소외되어 있어서 사실상 아프리카는 전세계적 슬럼으로 남아 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의 NIDL이 보편화된 상황에서도 저임금의 비숙련 부문에 대한 투자 대상국에조차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있는 해외수출시장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은 전체적으로 이보다 상황이 낫기는 하지만, 저임금 부문의 비숙련 노동은 여전

히 도시 내의 비공식 경제와 농촌의 높은 실업률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또한, 외국 기업이나 정부의 해외 직접투자로 자국민들이 이용해야 할 막대한 토지와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잃고 부가가치의 유출을 경험하고 있다.

결국, 빈곤과 불평등의 지리는 지리적 상호연결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나 지역은 내부와 외부 간에 뚜렷이 구분 가능한 공간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관계적으로 존재하며, 이런 지리적인 관계 하에서 상이한 경제적, 정치적 지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Massey, 2005). 따라서 특정 지역이나 국가 내부에서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해서 해당 지역이나 국가 구성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 있어서 전세계적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또는 완화하기) 위한 윤리적 책임과 분배적 정의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일정한 레짐(regime)이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박성우, 2016).

이런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1960년대 이후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DC)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켜 온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기아 퇴치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의 IDC는 이러한 윤리적 책임과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윤리적 태도는 IDC를 소극적 의무로 보는 ‘최소주의적’ 견해와 적극적인 의무로 보는 ‘평등주의적’ 견해로 나눌 수 있다(박성우, 2016). 전자는 빈곤과 불평등이 글로벌 경제 질서의 산물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정하고 ODA를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선진국의 의무로 규정하고자 하며,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휴머니즘이나 세계사회의 일원임을 강조하는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에 입각하여 동료 구성원으로서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적극적인 의무로 규정하고자 한다. 최소주의의 입장은 국제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에 대해 선진국의 강한 구속력과 뚜렷한 책임의 문제를 명백히 할 수 있지만, 오랜 (포스트)식민주의의 지리적 역사와 복잡한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이런 책임을 개별 선진국에 어떻게 설정, 강제할 것인가라는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반면, 평등주의 입장은 지리적 상호연결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근대 민족국가의 시민성이 지니는 ‘상상의 공동체’(Anderson, 1983)와 ‘만들어진 전통’(Hobsbawm, 1983)으로서의 속성을 극복하고 IDC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적극성을 어떻게 ODA라는 ‘국가적 차원’의 입장으로 스케일을 옮기고 어떻게 국제적 합의와 공조로 수렴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이런 점에서 최소주의와 평등주의는 상호배타적, 대립적 관점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고 강화적인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런 점에서 최소주의 원칙은 과거 식민 지배국으로서 ODA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지리적 책임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휴머니즘 및 세계시민주의에 입각한 평등주의 원칙은 보다 넓은 시민사회에서의 (또는 한국과 같이 식민 지배국으로서의 책임과는 무관한 국가에서의) IDC에 대한 노력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데에 중요한 원리가 될 것이다.

IDC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60년대 이후 국제개발협력의 차원에서 오랫동안 전개되어 왔다. IDC의 시초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트루만 대통령이 발표했던 포인트4 계획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IDC의 근간이 되었던 국제적 합의는 1961년 UN 총회에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UN 개발10년계획’이다. 이 계획과 더불어 1960년에 세계은행그룹 산하에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가 설립되었고, 1961년에 OECD와 그 산하의 개발원조 전담 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가 구성되었으며, 1965년에는 UN 산하에 IDC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UN개발프로그램(UN Development Program; UNDP)이 창립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의 결실이 2000년의 밀레니엄 UN 정상회의(UN Millennium Summit)에서 2015년을 목표로 8개의 MDGs로 맺어지게 되었다. UN회원국들은 MDGs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18개의 세부지표를 통해 IDC를 구체적으로 실행, 관리해왔고,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 깨끗한 식수에의 접근성, 보편 초등교육의 달성, 아동 사망률 감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다(UNDP, 2015; 박경환·윤희주, 2015). 또한, UN 회원국들은 2012

년의 Rio+20 회의에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여 포스트-2015 개발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2015년 9월 UN 당사국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UN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이른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발표하였다. UN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에서의 모든 유형과 모든 차원의 빈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2030년까지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지표를 달성하기로 결정했고(UNDP, 2015), 이 목표는 UNDP나 OECD/DAC 등 해외원조 관련 기구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원조기관 및 개발NG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박경환·윤희주, 2015).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IDC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의 결과물로서 MDGs와 SDGs의 내용 구조를 분석, 비교 검토한 후 그 지리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은 개발에 대한 인식, 미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 제시, 현실 문제에 대한 진단, 달성하고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프레임과 평가 방안을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1960년 이후 반세기가 넘는 역사 속에서 국제 사회가 추구해 왔던 IDC의 방향과 성과 및 한계를 집약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SDGs는 향후 국제 사회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안보적 측면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갖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와 노력이 향후 지리적 불균등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선, 본 논문에서는 2000년에 MDGs가 성립될 수 있었던 배경 및 과정과 MDGs의 내용 구조를 알아본 후 MDGs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이의 연장선상에서 2012년부터 국제 사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포스트-2015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이 논의의 결과인 SDGs의 내용 구조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MDGs와 SDGs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오늘날 빈곤과 불평등의 지리와 그 지리적 상호연결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SDGs가 갖는 지리적 함의를 도출하고 그 기회와 한계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2. MDGs의 성립, 경과 및 평가

1) MDGs의 성립 배경과 내용

국제개발협력의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냉전 체제가 종식된 1990년대로서, 이 시기에는 빈곤과 기아, 질병, 환경 문제 등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전면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결과 1992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전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실천의 결과로서 UN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가 개최되었고, 1994년에는 UNDP가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처음으로 발간함으로써 인간개발지수(HDI)와 인간 안보(human security) 개념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최종적 결과가 바로 2000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UN 새천년정상회의(UN Millennium Summit)였다(박정환·윤희주, 2015).

UN은 2000년 세계 지도자들의 새천년정상회의를 마치며 새천년선언을 채택하였다. 새천년선언은 모든 개인은 자유, 평등, 기아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관용과 연대를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음해 이러한 선언의 권리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를 제시한 것이 MDGs이다. 이 190개국 이상이 참여한 글로벌 목표는 국제개발협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복구를 위한 경제성장과 식민 지배를 벗어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중요시 하였다.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두 차례의 오일 쇼크와 식량위기를 경험하며 국제사회는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1990년대 탈냉전 시대가 열리면서 국제개발협력은 이데올로기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난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경제 개발 이외의 기본적인 삶의 중요성을 다루는 환경개발회의(1992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1993년), 세계여성회의(1995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적 논의를 반영하여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경제개발 위주에서 사회발전 중심으로 변화시키게 되었다.

OECD/DAC에서는 오랜 기간 제공된 원조에 비해 그 효과가 미비하여 다수의 공여국이 원조피로(aid fatigue)를 느끼는 상황에서 그동안 독자적으로 제공하던 원조 지원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

하고자 제한된 재원의 지원 효과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OECD/DAC는 1996년 《21세기 개발협력전략》을 채택하며 국제개발협력 역사상 최초로 원조 지원에 대한 공여국 공동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 문서의 7대 국제개발 목표는 절대빈곤 비율을 반으로 줄이는 경제적 복지 측면과 더불어 교육, 양성평등, 영유아와 산모 사망률 감소와 보건 서비스 개선 등의 사회개발, 그리고 환경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21세기 개발협력전략》은 정치적, 외교적 목적과 이해관계를 위해 양자 간 원조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지양하는 대신, 보다 포괄적이고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다자 간 원조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결실이다. 이처럼 MDGs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독자적으로 세운 목표가 아니라 1990년대에 개최되었던 주요 국제회의들의 아젠다와 목표를 재구성하고 단순화한 것으로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모든 UN 회원국들이 약속한 것이다.

MDGs는 수립과정에서 OECD/DAC의 21세기 개발협력 전략을 상당부분 그대로 반영하고 여기에 참여국가간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포함하여 8개의 목표(goal)를 제시하고 있고, 이들 목표는 다시 21개의 세부목표/대상(target)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6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MDGs 수립 당시에는 18개의 세부목표를 설정했으나 2007년 UN총회에서 4개를 추가하고 1개를 삭제해 총 21개가 되었다.¹⁾ MDGs의 8개 목표는 경제적 복지를 우선하여 극빈층 인구를 감소시키는 목표를 제시하고, 사회 발전을 위한 목표로 보편적 초등 교육, 양성 평등, 아동사망률 감소, 모성 보건, 그리고 에이즈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의 확산 저지 및 감소와 치료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환경 보전 측면에서는 안전한 식수 및 하수도 확대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를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들은 추상적인 아젠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개의 세부목표와 60개의 지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달성 과정을 모니터링 할 것으로 결의되었다.

전체 8개의 목표로 이루어진 MDGs는 7개의 목표는 저개발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가에 해당하고, 8번째 목표는 선진국에게 적용되는데, 처음 7개의 목표는 측정 가능한 계량지표로 표시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상을 갖고 있고, 마지막 8째 목표는 질적 목표이다. MDGs의 8개 목표와 18개 대상은 지금까지

표 1. OECD 국제개발목표와 UN MDGs 8개 목표와 대상

| OECD 21세기 개발협력전략 국제개발목표(1996년) | | UN 새천년개발목표 (2000년) | |
|--------------------------------|--|---------------------------|--|
| | | 8개 목표 | 세부목표/대상 |
| 경제 복지 | 1. 절대빈곤 비율 1/2 감소 | 1.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 1A. 1990~2015년간 1일 소득 1.25달러 미만 인구 비율 반감 1B.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일다운 일자리 제공 1C. 1990~2015년간 기아인구 비율 반감 |
| | 2.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 초등교육 의무화 |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2.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초등 교육의 기회 제공 |
| 사회 발전 | 3. 초·중등 교육의 성차별 근절을 통한 양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 | 3. 양성평등 및 여성 지위 향상 | 3. 교육에서 성별 간 차이 초·중등 교육 2005년까지, 모든 교육 2015년까지 제거 |
| | 4.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2/3 감소 | 4. 아동사망률 감소 | 4. 1990~2015년간 5세 미만 아동사망률 2/3 감소 |
| | 5. 산모사망률 3/4 감소 | 5. 모성보건 증진 | 5A. 1990~2015년간 산모사망률 3/4 감소 5B. 2015년까지 출산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 확대 |
| | 6. 모든 개인의 기초 의료 제도 및 모자보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6.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각종 질병 퇴치 | 6A. 2015년까지 에이즈 확산 저지 및 감소 6B. 2010년까지 필요한 사람에게 에이즈 치료의 보편적 보급 6C.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 저지 및 감소 |
| 환경 보전 | 7. 2015년까지 환경 손실을 역전시키도록 모든 국가는 2005년까지 지속가능개발의 국가전략을 수립, 이행 |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 7A. 지속가능개발 원칙을 국가정책으로 통합 및 환경자원 손실 복원 7B.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억제 및 감소율의 현저한 저하 7C.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 비율 반감 7D. 2020년까지 최소 1억 명의 빈민가 거주자 생활 여건 현저한 향상 |
| | |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8A.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 체계 발전 8B. 저개발국의 특수한 문제 해결 8C. 내륙국 및 소규모 도서지역 개발도상국에 특수한 문제 해결 8D.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외채 수준 유지를 위한 개발도상국 외채 문제의 포괄적 해결 8E. 민간 제약회사와 협력하여 필수약품의 개발도상국 제공 8F.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정보통신 등 신기술 혜택 확산 |

개발 이슈로 취급되어왔던 각각의 개발 분야(빈곤 퇴치, 교육, 여성, 보건, 환경, 파트너십 강화) 목표가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의 수행을 추구한다는 데 의

의가 있다. 또한 파트너십에 관한 목표는 개발 사업에서 수원국의 주인의식, 개발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개발협력의 수단이자 최종 목표 중 하나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 MDGs의 내용과 성과

MDGs는 개발도상국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UNDP가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매년 'UN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MDGs의 성과는 목표별로 세부적인 성과에 기초해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역별로 평가를 하고 있다. 최근의 최종 2015년 보고서는 MDGs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며 상당한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지난 15년간의 성과 달성 전망을 보면 달성 가능은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과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의 2개 분야에서 나타나고, 부분적 달성은 절대 빈곤과 기아 종식, 에이즈 등의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그리고 지구적 개발 파트너십 구축의 4개 분야에서 나타난다. 반면 달성 미달은 영아사망률과 모성보건 증진의 2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MDGs는 지구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남겨진 과제는 2016년부터 시

표 2. MDGs의 달성 전망과 대표적 지표의 변화

| 목 표 | 달성 전망 | 대표적 지표 |
|------------------------|-------|--|
| 1. 절대 빈곤 및 기아 종식 | 달성 가능 | 1일 1.25달러 미만 생활 인구 비율 36%(1990년) → 12%(2015년) |
|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달성 가능 | 초등학교 등록률 79.8%(1991년) → 90.5%(2015년) |
| 3.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 부분 달성 | 초등학교 등록 성비(여/남) 0.74(1990년) → 1.03(2015년) |
| 4. 영아사망률 감소 | 달성 미달 | 최빈국 5세 이하 영아사망률 90/000출생(1990년) → 43/000출생(2015년) |
| 5. 모성보건 증진 | 달성 미달 | 산모 사망자수(10만명 출산 기준) 380명(1990년) → 330(2000년) → 210(2015년) |
| 6. 에이즈,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 | 부분 달성 | 인구 100명당 에이즈 발병률(새로 발병한 확률) 0.1(1990년) → 0.06(2010년) |
| 7.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 부분 달성 | 1인당 CO2 배출량(톤) 1.66(1990년) → 2.03(2000년) → 3.16(2010년) |
| 8. 전 지구적 개발 파트너십 구축 | 부분 달성 | 개발도상국의 수출액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 12%(2000년) → 3.1%(2013년) |

* U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의 요약(김수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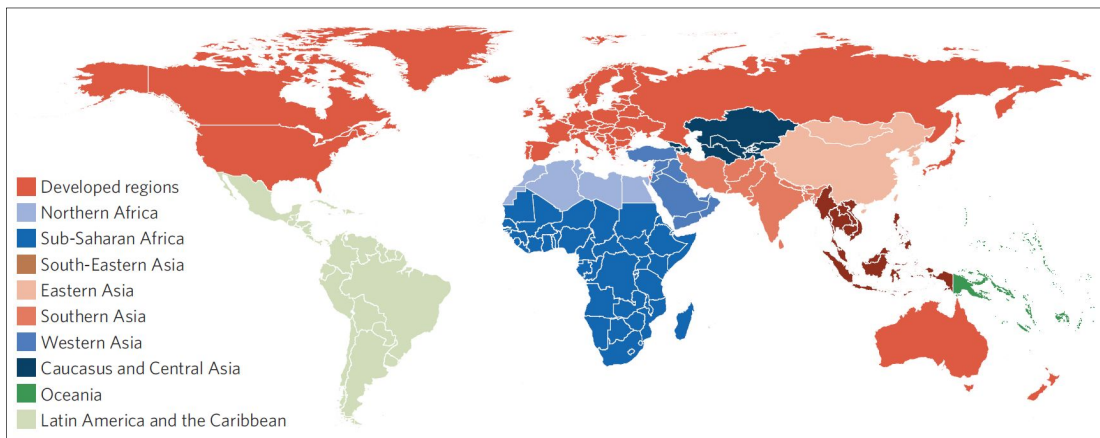


그림 1. UN MDGs의 세계 지역구분(UN, 2015a, 71)

표 3. MDGs 16개 세부목표(대상)의 개발도상국 9개 지역별 진전 상황

| | 달성/훌륭한 진전 | 양호한 진전 | 무던한 진전 | 빈약한 진전 | 자료 불충분 |
|----------------------|-----------|--------|--------|--------|--------|
| 목표 1A 극빈층반감 | 6 | 1 | 1 | 0 | 1 |
| 1B 적절한 일자리 | 1 | 3 | 3 | 2 | 0 |
| 1C 기아인구 반감 | 5 | 1 | 1 | 2 | 0 |
|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 2 | 4 | 3 | 0 | 0 |
| 목표 3A 여아 평등초등교육 | 5 | 3 | 1 | 0 | 0 |
| 3B 임금직 여성 할당 | 3 | 2 | 3 | 1 | 0 |
| 3C 여성의 국회 진출 | 0 | 6 | 1 | 2 | 0 |
| 목표 4 5세이하 사망률 2/3 감소 | 3 | 5 | 1 | 0 | 0 |
| 목표 5A 산모사망률 3/4 감소 | 2 | 5 | 2 | 0 | 0 |
| 5B 출산보건 이용 | 6 | 3 | 0 | 0 | 0 |
| 목표 6A 에이즈 확산 저지, 감소 | 4 | 2 | 0 | 3 | 0 |
| 6B 결핵 확산 저지, 감소 | 4 | 2 | 2 | 1 | 0 |
| 목표 7A 안전한 식수부족 인구 반감 | 5 | 2 | 0 | 2 | 0 |
| 7B 하수시설 미비인구 반감 | 4 | 2 | 1 | 1 | 0 |
| 7C 슬럼거주환경 개선 | 1 | 4 | 1 | 1 | 2 |
| 목표 8 인터넷 사용자 | 6 | 3 | 0 | 0 | 0 |
| 전 체 | 57 | 48 | 20 | 15 | 3 |

* 자료: UN, 2015, New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15 Progress Chart.

작되는 SDGs로 넘겨주게 되었다.

MDGs는 세계 여러 국가를 발전지역(developed regions)과 개발도상지역(developing regions)으로 구분하고 개발도상지역은 다시 9개의 하부 지역으로 나누어 성취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MDGs 달성 정도는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발도상국의 지역별 MDGs의 세부목표(대상)별 성과를 개발도상국 9개 지역별 진전 수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대다수 지역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개발도상국 5개 지역 이상에서 달성이 이루어진 세부목표(대상)은 1A 극빈층 반감, 1C 기아인구 반감, 3 여아 평등 초등교육, 5B 출산보건 이용, 7A 안전한 식수부족 인구 반감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3C 여성의 국회 진출, 1B 적절한 일자리 제공, 7C 슬럼거주환경 개선, 2 보편적 초등교육, 5A 산모사망률 3/4의 세부목표(대상)은 개발도상국 2개 지역 이하에서만 달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세부목표(대상)의 지역별 달성 정도는 1C 기아인구 반감, 7A 안전한 식수부족 인구 반감의 경우 5개 지역에서 달성이 되었지만 2개 지역에

서는 빈약한 진전을 보이는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며 개발도상국 지역 간 격차를 드러내기도 한다.

개발도상국 9개 지역별 세부목표(대상)의 진전 정도를 보면 성공과 실패의 측면에서 4그룹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우선 동아시아는 16개의 세부목표(대상)에서 12개를 달성해 월등한 진전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코카서스-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는 16개 세부목표(대상) 중 과반 전후의 달성을 보인다. 미약한 달성은 남아시아와 서아시아에서 나타나며, 가장 미약한 진전은 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 오세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미약한 진전을 보인 이들 두 지역에서 달성한 세부목표(대상)은 에이즈 확산 방지였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하수시설미비인구 반감에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세아니아의 경우 이를 포함해, 안전한 식수, 결핵 확산 반감, 여성의 국회 진출, 기아인구 반감에서 진전이 이루어 지지 않아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UN, 2015b). MDGs의 지역별 차이는 지리적 특성과 더불어 국가

표 4. MDGs 개발도상국 9개 지역별 16개 세부목표/대상의 진전 상황

| | 달성/훌륭한 진전 | 양호한 진전 | 무던한 진전 | 빈약한 진전 | 자료 불충분 |
|-------------|--------------|--------|--------|--------|--------|
| 동아시아 | 12 | 2 | 0 | 2 | 0 |
|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 8 | 5 | 3 | 0 | 0 |
|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 8 | 2 | 3 | 2 | 1 |
| 북아프리카 | 7 | 5 | 2 | 2 | 0 |
| 동남아시아 | 6 | 8 | 2 | 0 | 0 |
| 남아시아 | 4 | 11 | 1 | 0 | 0 |
| 서아시아 | 4 | 6 | 2 | 4 | 0 |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 1 | 9 | 5 | 1 | 0 |
| 오세아니아 | 1 | 3 | 5 | 5 | 2 |
| 전 체 | 51 | 51 | 23 | 16 | 3 |

* 자료: UN, 2015, New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15 Progress Chart

의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국가단위의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 지역과 국가의 역량 차이 및 기초선에 대한 조사가 부족해 지역 격차가 일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 또한 중요하다.

MDGs의 2015년까지의 개발도상국 전체적인 성과 달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배경으로 자연재해와 경제공황과 같은 국제적인 환경을 들 수 있는데, 아이티, 필리핀 등에서의 대규모 자연재해 또한 긴급구조로 재원이 투입되었다. 또한, 2000년대 중반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아일랜드 등 주요 공여국들의 원조 감소로 이어지며 MDGs를 위한 용도의 재원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MDGs의 이행수단은 공여국의 원조 정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목표 달성이 계획보다 낮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현재 빈곤 관련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아직 8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 극심한 빈곤 상태에 살고 있으며 기아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빈곤층과 부유층 사이 그리고 농촌과 도시 지역 가구 간에 존재하는 큰 격차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빈곤한 가구의 어린이들이 부유한 가구에 비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정도가 4배이고, 5세 이하 사망률은 2배 이상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56%만이 출산 시 보건전문가의 보조를 받는데 비해 도시지역은 78%이다. 농촌 인구의 약 16%만이 개량된 음용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반면 도

시지역은 4%정도이다. 농촌에 사는 인구의 50%는 개량된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반면 도시지역은 18%이다. 성별 불평등은 지속적인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성별 참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3. SDGs의 성립 과정 및 내용 구조

1) 포스트-2015에 대한 논의 전개

UN의 포스트-2015 개발 아젠다 논의 과정은 크게 2010년 이후 UN사무총장 주도의 개발 프로세스와 1992년에 출범했던 UN 지속가능개발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가 2012년의 Rio+20 UN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프로세스가 두 가지 트랙으로 분리되어 진행되다가, 2014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69차 UN 총회에서 포스트-2015 개발 아젠다 초안으로 통합되었다(이성훈, 2014; 오정화·박영실, 2015).

우선, 2010년 9월에 개최된 제65차 UN 총회는 UN사무총장으로 하여금 MDGs가 종료되는 2015년 이후의 개발아젠다를 구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A/RES/65/1)을 채택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MDGs 목표 달성을 관리하고 국제개발협력력을 주도해 온 UN개발프로그램(UN Development Programme)은 2011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포스트-2015에 관

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2011년 『인간개발보고서』의 부제목이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로 정해진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포스트-2015 논의의 핵심 키워드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이 이미 예고되었다(UNDP, 2011). 그리고 2012년에 예정되어 있던 Rio+20 회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유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UNDP, 2011, 81). 이런 방향 속에서 2012년 1월 UN사무총장은 UN 내부에 실무팀(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2012)을 구성했다. 그리고 이 실무팀은 6개월의 작업 기간을 거쳐서 2012년 6월 『우리가 모두를 위해 원하는 미래의 실현(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은 인권, 평등, 지속가능성이라는 3가지 핵심 가치의 토대 위에서 그려져야 한다고 보았고, MDGs가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는 이제 포괄적 사회 발전, 포괄적 경제 발전, 환경 지속가능성, 평화 및 안보라는 4가지 차원에서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실무팀 보고서가 제출된 것과 같은 달인 2012년 6월 UN사무총장은 영국 총리와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주요 국가의 대표, 분야별 전문가, 국제단체 대표를 포함하는 총 27명으로 구성된 포스트-2015 UN 개발 아젠다를 위한 고위급조사단(High-Level Panel on the 포스트-2015 UN Development Agenda)을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위의 실무팀 보고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다 체계화하여 포스트-2015의 아젠다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고위급조사단은 약 1년에 걸쳐 세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양한 현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13년 5월에 최종보고서인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빈곤 종식과 경제 전환》을 UN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다(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13).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포스트-2015 개발 아젠다는 다음의 5가지에 핵심적인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1. 누구도 뒤쳐져서는 안 됨: 민족집단, 젠더, 지

- 리, 장애, 인종 등의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기회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 핵심임: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를 늦추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섬으로써 생산과 소비 패턴을 지속가능하게 변혁해야 한다.
3. 일자리 창출과 다함께 성장하는 경제로의 전환: 혁신, 기술, 기업의 잠재력을 동원하여 빈곤 근절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 전환을 이룩해야 하며, 특히 청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환경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4.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 구축과 효과적이고 개방적이며 책임감 있는 제도 마련: 평화와 좋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폭력, 갈등,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안녕해야 한다.
5.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 인류에의 공유와 호혜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대, 협력, 상호책임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위의 5가지 내용을 몇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빈곤 완전한 종식,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평화와 안보,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 경제, 평화와 안보, 글로벌 파트너십은 이미 MDGs에서 강조, 추구되었던 내용으로서, 사실상 고위급조사단이 포스트-2015 개발 아젠다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위급조사단 보고서가 명시한 두 번째 부분은 12개의 목표와 54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된 포스트-2015 개발 아젠다인데, 고위급조사단은 이를 규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예시적인(illustrative)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이후에 계속 추가, 보완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 중 12개의 목표에는 ① 빈곤 종식, ② 여성 권익 향상과 성 평등의 달성, ③ 양질의 교육과 평생교육 제공, ④ 건강한 삶의 보장, ⑤ 식량 안보와 충분한 영양 공급의 보장, ⑥ 식수와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⑦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보장, ⑧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생계, 공평한 성장 달성, ⑨ 자연 자원 및 자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⑩ 좋은 거버넌스와 효과적인 제도의 보장, ⑪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 보장, ⑫ 능력 발휘가 가능한 글로벌 환경 조성 과 장기 금융 촉진 등 12가지가 포함되어 있었

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은 MDGs에 제시되지 못했던 새로운 목표로서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었다.

‘지속가능성’에 토대를 둔 고위급조사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UN사무총장은 2013년 7월 26일 《모두를 위한 존엄한 삶(A Life of Dignity for All)》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UN에 제출하였고, UN은 2013년 9월에 개최된 제68차 총회에서 이 보고서를 채택하였다(A/68/202). 이 보고서는 포스트-2015의 핵심 아젠다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며, 이런 노력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 우리의 글로벌 지도 원리이자 운영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고 UN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명시한데에 의의가 있다(United Nations, 2013, 1). 이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① 빈곤 근절, ② 배제와 불평등 억제, ③ 여성·여아 인권 향상, ④ 양질의 교육과 평생 학습 기회 제공, ⑤ 의료 개선, ⑥ 기후 변화 대응, ⑦ 환경적 도전에 대한 대응, ⑧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⑨ 기아와 영양실조 근절, ⑩ 인구학적 도전에 대한 대응, ⑪ 이주민의 긍정적 효과 강화, ⑫ 도시화의 도전에 대한 대응, ⑬ 안정적 제도와 법률을 통한 평화롭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⑭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의 촉진 등 14가지로 구성된 내용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둘째, UN지속가능개발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는 201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992년 UN 지구 정상회의의 2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리우+20 회의’를 개최하였다. 리우+20 회의의 주요 아젠다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결의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UNCSD, 2012). 첫째는 1992년 리우 회의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녹색 경제의 발전을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 퇴치라는 맥락에서 재조명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프레임을 조정, 구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셋째 사항과 관련해서, 이 결의문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이 목표가 “행동-지향적이고, 소통하기에 간결하고 쉬우며, 수적으로 많지 않고, 열망을 담고 있어야 하며, 본질적으로 글로벌해야 하고,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했다(UNCSD, 2012, 63). 또한, 이 아젠다에는 SDGs가 “포스트-2015 개발 아젠다 수립 프로세스와 함께 조정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항도 적시함으로써, 향후 MDGs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의했다(UNCSD, 2012, 64).

리우+20 회의 결과 세계 주요 정상들은 UN환경프로그램(UN Environment Programme)을 강화하기로 했고, 각 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구성하는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을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UNCSD를 대체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UN 총회의 결정으로 공개작업그룹(Open Working Group: OWG)은 2013년 1월 22일에 구

표 5. 공개작업그룹(OWG)의 지역별 그룹 수 및 구성

| 지역 | 수 | 대표 그룹 |
|--------------|---|---|
| 아프리카 | 7 | 가나, 베냉, 케냐, 탄자니아, 콩고, 짐바브웨/잠비아, 알제리/이집트/모로코/튀니지 |
| 아시아-태평양 지역 | 7 | 나우루/팔라우/파푸아뉴기니, 부탄/태국/베트남, 인도/파키스탄/스리랑카, 중국/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키프로스/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 방글라데시/한국/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일본/네팔 |
| 라틴아메리카-카리브지역 | 6 | 콜롬비아/과테말라, 바하마/바베이도스, 가이아나/아이티/트리니다드토바고, 멕시코/페루, 브라질/니카라과, 아르헨티나/볼리비아/에콰도르 |
| 서부유럽 및 기타 지역 | 5 | 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영국, 캐나다/이스라엘/미국, 덴마크/아일랜드/노르웨이, 프랑스/독일/스위스, 이탈리아/스페인/터키 |
| 동부유럽 | 5 | 헝가리, 벨로루시/세르비아, 불가리아/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슬로베니아, 폴란드/루마니아 |

성되었다(A/67/L.48/rev.1). 공개작업그룹은 30명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아프리카 그룹(7명),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룹(7명),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7명), 서부 유럽 및 북아메리카(5명), 동부 유럽(7명) 등 5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개작업 그룹에는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지역 등 그 이전에 비해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상당히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목소리와 실정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었다. 공개작업그룹은 2013년 3월 14~15일에 제1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 후, 2014년 6월 14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포스트-2015 아젠다와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4년 8월 12일 《지속가능목표를 위한 공개작업그룹 제안서(Open Working Group Propos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를 작성, 완료하였고, 이 문건은 포스트-2015 개발 아젠다 초안으로서 2014년 9월에 개최된 제69차 UN 총회에 제출되었다(A/68/970).

《지속가능목표를 위한 공개작업그룹 제안서》의 서문은, 리우+20 회의의 결과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SDGS라는 개념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고 그 핵심적인 목표가 빈곤 퇴치,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경제·사회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자연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포스트-2015 아젠다의 명칭을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lopment Goals)”임을 재확인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① 빈곤 종식, ② 식량 및 영양 개선, ③ 건강과 의료, ④ 양질의 교육 기회 증진, ⑤ 성 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⑥ 식수와 위생 시설 개선 및 관

표 6. 포스트-2015 아젠다 개발 프로세스 상의 주요 보고서 내용 비교

| |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제시된 12개 목표 | 《모두를 위한 존엄한 삶》에서 제시된 14개 목표 | 《공개작업그룹 제안서》에서 제시된 17개 목표 |
|----------|--------------------------------------|--|--|
| 공통 영역 | ① 빈곤 종식 | ① 빈곤 종식 | ① 빈곤 종식 |
| | ② 여성 권익 향상과 성 평등의 달성 | ③ 여성·여아 인권 향상 | ⑤ 성 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
| | ③ 양질의 교육과 평생교육 제공 | ④ 양질의 교육과 평생 학습 기회 제공 | ④ 양질의 교육 기회 증진, |
| | ⑤ 식량 안보와 충분한 영양 공급 | ⑨ 기아와 영양실조 근절 | ② 식량 및 영양 개선 |
| | ④ 건강한 삶의 보장 | ⑤ 건강 상태 개선에 포함 | ③ 건강과 의료 |
| | ⑥ 식수와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 | | ⑥ 식수와 위생 시설 개선 및 관리 |
| | ⑦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보장 | ⑥ 기후 변화 대응 | ⑦ 지속가능한 에너지 |
| | ⑧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생계, 공평한 성장 달성 | ⑧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 ⑧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
| | ⑨ 자연 자원 및 자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 ⑦ 환경적 도전에 대한 대응 | ⑮ 육지 생태계 보존, 사막화 방지, 생물 다양성 유지 |
| | ⑩ 좋은 거버넌스와 효과적인 제도의 보장 | ⑬ 안정적 제도와 법률을 통한 평화롭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 ⑯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제도 구축 |
| | ⑪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 보장 | | |
| 교차 영역 | ⑫ 능력 발휘가 가능한 글로벌 환경 조성 과 장기 금융 촉진 | - | - |
| | - | ② 배제와 불평등 억제 | ⑩ 지역 간 불평등 완화 |
| | | ⑫ 도시화의 도전에 대한 대응 ⑭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의 촉진 |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⑰ 이행 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
| 기타 영역 | | ⑩ 인구학적 도전에 대한 대응 ⑪ 이주민의 긍정적 효과 강화 | ⑨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⑫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⑬ 기후 변화 대처 ⑭ 지속가능한 해양 자원 사용 |

표 7. UN의 개발재원총회 흐름(출처: KoFD·KOICA, 2016, 30의 표를 수정하였음)

| | 제1차 UN개발재원총회 (2002, 카타르 도하) | 제2차 UN개발재원총회 (2008, 카타르 도하) | 제3차 UN개발재원총회 (2015,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
|-------|--|--|---|
| 의의 | MDGs 달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개최된 첫 번째 회의 |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경기 후퇴에도 불구하고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공여국의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어야 함을 제안 |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 및 개발 재원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하고,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기업의 참여 독려 |
| 주요 내용 | 공여국의 공적 자금(ODA), 해외직접투자(FDI), 국제 무역 촉진, 부채 탕감,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편 | 제1차 합의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기업의 투자를 독려함 | SDGs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이행 수단 강화, 행동 계획에 대한 검토와 후속 조치 점검 방안 마련의 필요성 제시와 사회적 협약에 대한 약속과 결의를 도출 |

리, ⑦ 지속가능한 에너지, ⑧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⑨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⑩ 지역 간 불평등 완화,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⑫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⑬ 기후 변화 대처, ⑭ 지속가능한 해양 자원 사용, ⑮ 육지 생태계 보존, 사막화 방지, 생물 다양성 유지, ⑯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제도 구축, ⑰ 이행 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2013년 고위급 조사단의 보고서였던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이 제시했던 12개 목표 중 11개를 반영한 것이고, UN사무총장의 보고서인 《모두를 위한 존엄한 삶》이 제시했던 14개 목표 중 12개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공개작업그룹의 보고서가 사실상 다양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던 포스트-2015 논의를 사실상 총체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을 함의한다.

한편, UN총회를 앞둔 2개월 전에는 2015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에티오피아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제3차 개발재원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를 개최하여 글로벌 프레임워크, 개별 행동 분야, 그리고 행동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등 총 3개 영역, 134개 조항을 통해 SDGs 달성을 위해 국제 사회가 협력해야 할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었다(오정화·박영실, 2015). 이는 2002년과 2008년에 카타르 도하에서 있었던 제1차 및 제2차 개발재원총회의 연장으로서 새로운 개발 목표 수립을 위한 재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 회 의에는 UN회원국 정부 대표뿐만 아니라 개발 관련 양자 기구 및 다자

기구, 개발 관련 금융기구, 기업, 시민사회 대표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였고, 총회의 결과 《아디스아바바 행동아젠다(Addis Ababa Action Agenda)》를 채택하였다. 이 결과 문서는 SDGs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이행 수단 강화, 행동 계획에 대한 검토와 후속 조치 점검 방안 마련의 필요성 제시와 사회적 협약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내공적자금, 국내의 민간 기업 재원, 국제개발협력, 개발동력으로서의 국제 무역, 부채 및 부채 지속가능성, 개발 재원 시스템 이슈에 대한 대응, 그리고 과학, 기술, 혁신 및 역량 강화 이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포스트-2015 아젠다 개발 프로세스는 《지속가능목표를 위한 공개작업그룹 제안서》로 귀착되었고, 이는 제 69차 총회 이후 세부 목표 선정 회의, 이행 수단 및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회의, 후속 조치 및 평가 회의 등의 수정 및 정교화 프로세스를 거친 후 2015년 9월 제70차 UN총회에 제출되었다.

2) SDGs의 내용 구조

2015년 9월 25일 UN 총회는 포스트2015 개발 아젠다로서 《우리의 세계를 바꾸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아젠다(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이름의 결의문을 채택, 결의하였다. 이 결의문은 크게 〈서문〉, 〈선언〉,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중점 사항〉, 〈실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그리고 〈후속 조치와 검토〉의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8. 2030아젠다의 내용 구조

| 주요 영역 | 주제 | 조항 | 주요 내용 |
|-------------------------------------|-----------------|-------|--|
| 서문 | | | 2030아젠다가 사람, 지구, 번영, 평화를 위한 행동 계획임을 명시(파트너십을 포함한 5P의 당위성 설명) |
| 선언 | 서론 | 1~6 | SDGs의 공식적 선언. 빈곤 퇴치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관계 명시 |
| | 비전 | 7~9 | SDGs가 지향하는 미래 세계에 대한 비전 제시 |
| | 공유된 원리와 책임 | 10~13 | 2030아젠다가 UN을 비롯한 일련의 국제적 노력과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접근은 빈곤, 불평등, 환경,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적 포용의 상호의존성 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함을 명시 |
| | 오늘날의 세계 | 14~17 | 빈곤과 기아, 불평등 등 세계의 개발 문제 제시. MDGs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목표 달성의 필요성 명시 |
| | 새로운 아젠다 | 18~38 |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의 당위성을 개별적으로 설명 |
| | 실행 수단 | 39~46 | SDGs 달성을 위한 재원으로서 ODA를 비롯한 공적자금의 확대와 아울러 다양한 민간 자원을 동원할 것임을 명시 |
| | 후속 조치와 검토 | 47~48 | 세부 지표 마련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 확인 |
| | 세계를 바꾸는 행동에의 동참 | 49~53 |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 인류의 동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하고 독려 |
| SDGs와 중점 사항 (17개 목표와 169개 지표 제시) | | 54~59 | 개별 국가의 현실과 정책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SDGs의 통합성, 보편성, 불가분성을 명시하고, 세부 목표의 진척을 위해 회원국의 데이터 수집과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 지구의 생태계가 '어머니 지구'임을 명시 |
| 실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 | 60~71 |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과 개별 목표의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국제적 지표 프레임워크, 《아디아아바바 행동아젠다》를 구현하기 위한 매커니즘 구축을 명시 |
| 후속 조치와 검토 | 후속 조치와 검토 | 72~77 | 후속 조치와 검토에 대한 7가지 원칙 제시: 개별 국가의 자발성, 이행 사항 추적, 장기적 관점이 필요성, 개방성, 우선순위의 유연성, 실행 증거에 대한 엄밀성,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 UN 및 다자기구로부터의 지원 보장 |
| | 국가적 수준 | 78~79 | SDGs를 국가 정책의 토대로 삼고 국가 하위 단위에서의 진척을 지원, 포괄할 것을 제안 |
| | 지역적 수준 | 80~81 | 대륙 및 지역 간 토론과 상호 학습을 통한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 제시 |
| | 글로벌 수준 | 82~91 | 고위급정치포럼을 통한 지속적인 후속 조치와 검토가 계속될 것임을 명시 |

우선, 〈서문〉에서는 2030아젠다가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위한 행동 계획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을 포함해서 이른바 5P라고 불린다. 우선, 사람과 관련해서는, 모든 형태의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존

엄, 평등, 쾌적한 환경 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지구와 관련해서는, 환경 악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천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기후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모든 사람들이 잘 만족스럽게 살도록 하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진보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평화 없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도 없고 지속가능한 개발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인식하에) 공포나 폭력이 없이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 육성을 추구한다. 다섯째, 이 아젠다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 마련을 위해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초점을 두어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5P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각각 세부적인 복수의 SDGs를 포괄하게 되어 있다. 가령, 지구환경(Planet)과 관련된 SDGs에는, ⑦ 모두를 위한 에너지, ⑫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⑬ 기후변화 대응, ⑭ 해양 생태계, ⑮ 육상 생태계의 5가지 목표가, 번영(Prosperity)에는 ⑧ 일자리와 경제, ⑨ 인프라와 산업화, ⑩ 불평등 축소, ⑪ 지속가능한 도시의 4가지 목표가, 사람(People)에는 ① 빈곤 퇴치, ② 기아 근

절, ③ 건강과 안녕, ④ 양질의 교육, ⑤ 성 평등 및 여성 인권, ⑥ 식수와 위생의 6가지 목표가 포함된다. 그리고 평화(Peace)에는 ⑩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구축이 그리고 파트너십(Partnership)에는 ⑬ 개발 아젠다를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 포함된다.

〈선언〉은 크게 서론, 비전, 공유된 원리와 책임, 오늘날의 세계, 실행 수단, 후속 조치와 검토, 그리고 세계를 바꾸는 행동에의 동참이라는 8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2030아젠다는 MDGs가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을 완전하게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2030아젠다 행동 계획의 목표가 전지구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적 선결 조건인 빈곤 퇴치를 명시하면서, “빈곤이라는 폭군”으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SDGs는 서양의 고전적 자유주의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빈곤에 대한 이러한 자유주의적 접근은 오

표 9. 2030아젠다에 제시된 미래 세계의 비전

| 주요 영역 | 바람직한 미래 세계의 모습 |
|---------------------------|--|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조건 | • 공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 |
| | • 문명이 없는 세계 |
| | • 양질의 교육, 의료, 사회적 보호에 대해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계 |
| | •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보장되는 세계 |
| | • 깨끗한 식수, 상·하수도, 위생 설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세계 |
| | • 안전하고, 값비싸지 않으며, 영양가가 있는 충분한 음식이 보장되는 세계 |
| | • 안전하고, 값비싸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세계 |
| | •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이 보편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세계 |
| | • 법, 정의, 평등, 무차별의 원리가 보장받는 세계 |
|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 영역 | • 인종, 민족집단,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계 |
| | • 인간으로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고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기회 균등의 세계 |
| | • 폭력과 착취가 없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세계 |
| | • 모든 여성들이 어떠한 법적, 사회적, 경제적 장벽 없이 완전한 성 평등을 누리는 세계 |
| | • 정의롭고 공평하며 관용적, 개방적, 포용적이어서 취약집단의 필요가 충족되는 세계 |
| | • 모든 국가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누구나 일자리가 있는 세계 |
| 환경적 지속가능성 영역 | • 공기, 토지에서부터 하천, 호수에 이르는 자연자원의 소비와 생산이 지속가능한 세계 |
| |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유지와 빈곤 및 기아 퇴치에 필수적인 민주주의, 좋은 거버넌스, 법률 등의 여건이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잘 갖추어진 세계 |
| | • 개발·기술의 적용이 기후에 민감하고, 생물종을 고려하며 회복력을 갖추고 있는 세계 |
| | • 인간 존엄성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야생 및 기타 생명체들이 보호받는 세계 |

표 10. MDGs와 SDGs의 주요 영역 비교(박경환·윤희주, 2015)

| 주요 영역 | MDGs | SDGs |
|-------------|----------------------------|--|
| 기아 및 빈곤 퇴치 | ①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 ①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②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 |
| 교육 기회 향상 | ② 보편 초등교육 달성 | ④ 포괄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모든 연령층을 위한 평생 교육 기회 증진 |
| 여성 인권 보장 | ③ 양성 평등 및 여성의 인권 향상 | ⑤ 양성 평등 달성과 여성 인권 향상 |
| 건강·보건 증진 | ④ 아동사망률 감소 | ③ 모든 연령층의 건강 및 복지 증진 ⑥ 식수 및 위생 접근성 보장과 지속가능한 관리 ⑦ 값비싸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보장 |
| | ⑤ 모성 보건 증진 | |
| | ⑥ HIV/AIDS, 말라리아, 각종 질병 퇴치 | |
| 지속가능한 개발 | ⑦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 ⑧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생산적인 완전 고용, 양질의 일자리 촉진 ⑨ 회복력을 갖춘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업화, 혁신의 추구 ⑩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개선 ⑪ 도시 및 인류 주거를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이 있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⑫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의 보장 ⑬ 기후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⑭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양 및 해저 자원의 보전 및 사용 ⑮ 육지 생태계의 보전,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 사막화 방지, 토양 유실 중단 및 토양 복원, 생물 종 손실 중단 |
|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⑧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 ⑯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로운 사회 실현, 신뢰할만하며 포용적인 모든 수준의 제도 구축 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실행 수단의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의 재활성화 |

* 주: 각 목표의 순서는 UNDP에서 제시한 순서를 따름

늘날 빈곤이나 기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비판에 대해 침묵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선언문은 지속가능성, 회복력(resilience), 성 평등과 여성 권익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3각 축을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이들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30아젠다가 제시하고 있는 미래 세계의 '비전'은 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공유된 원리와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이 선언은 UN헌장, UN인권선언 및 MDGs 뿐만 아니라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지구 정상 회의의 등 지속가능한 개발과 전지구적 공존에 관한 일련의 국제회의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빈곤 종식, 국가 내·외간 불평등 제거, 지구의 수호,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 그리고 사회적 포용의 촉진이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 간 및 국가 내 불평등 심화, 기회와 부와 권력의 불평등 및 성적 불평등, 실업 문제(특히 청년 실업을 문제시 함)와 같은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

한, 보다 글로벌한 스케일에서 자유 시장 자본주의가 유발한 여러 가지 지구적 변화 요소들, 특히 세계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 더욱 빈번하고 거세지는 자연 재해, 갈등의 나선형적 확대, 폭력적인 극단주의 운동, 테러리즘,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위기와 강제적 추방과 이주 문제 등 사회적, 정치적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천연 자원의 고갈과 사막화, 가뭄, 토양 훼손, 식수 부족, 생물종의 감소와 같은 환경 파괴에서부터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해수의 산성화, 기타 해안 지역 및 저지대 국가들에 미치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 등 환경적 문제의 심각성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보급을 강조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의학과 에너지를 포함하는 과학 기술의 진보를 추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2030아젠다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설정했던 MDGs 달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MDGs 달성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으로 인해 전지구적으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 일대의 최빈국 국가들에서 그리고 부문별로는 모성 및 유아 사망률과 의료 부문이 가장 미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2030아젠다는 MDGs가 달성하지 못했던 부문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를 빈곤 및 기아, 의료, 교육, 식량, 영양과 같은 전통적인 부문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폭넓게 포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0아젠다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SDGs와 중점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17개의 지속가능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SDGs는 MDGs의 주요 영역인 기아 및 빈곤 퇴치, 교육 기회 향상, 여성 인권 보장, 건강·보건 증진, 지속가능한 개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포괄적으로 모두 반영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구조화되어 있다. 우선, 기아와 빈곤 퇴치, 교육 기회 향상, 여성 인권 보장, 건강·보건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삶에서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라는 점에서 SDGs에서도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둘째,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한 부분의 목표가 대폭적으로 늘어났고, 지속가능성의 영역이 환경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차원까지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개념적 범위도 매우 포괄적으로 바뀌었다.

MDGs와 SDGs의 상대적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목표의 측면에서 MDGs는 휴머니즘에 바탕을 둔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을 기본 개념으로 하되 경제적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면, SDGs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되 이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핵심 목표는 양자 모두 ‘빈곤 퇴치’를 우선시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적이지만, SDGs는 글로벌화에 따른 국가·지역 내 그리고 국가·지역 간 불평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MDGs는 최빈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국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SDGs는 이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선진국 및 다른 개발도상국 내부에서의 빈곤과 불평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넷째,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재원 마련에 있어서 MDGs는 ODA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반면, SDGs는 기업을 포함한 민간 재원을 대폭 끌어들이기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역을 통한 원조’ 개념 하에 투자와 교역

표 11. MDGs와 SDGs의 상대적 특징

| | MDGs | SDGs |
|-----------|----------------|----------------------------|
| 목적 | 인간개발 및 경제적 개발 |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개발 |
| 핵심 목표 | 빈곤 퇴치 | 빈곤 퇴치와 불평등 완화 |
| 주요 대상 | 개발도상국 |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
| 재원 | ODA 중심 | 당사국 기금, ODA, 민간재원 (투자, 교역) |
| 수행 주체 | 공여국과 수원국 관계 중심 | 다양한 주체 참여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조 |
| 기본 철학적 토대 | 인간중심주의 | 지구에 대한 감수성 (환경-인식적 태도) |
| 기업의 참여 | 기업의 참여 기회 제한적 | 기업의 참여 기회 대폭 확대 |

으로 재원을 확대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섯째, 수행 주체에 있어서 MDGs는 공여국의 양자 간 원조가 주요 흐름을 이루고 있었기에 DAC와 같은 선진국 정부의 목소리가 강했지만, SDGs는 수원국의 입장을 대폭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학계나 NGOs 등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조한다.

4. 이행에 따른 기회와 한계

1) MDGs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의

MDGs의 성과는 1980~90년대의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고, 8대 목표와 ‘목표-세부목표-이행지표’의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국제 규범 수립과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역사상 가장 빠른 빈곤감축 성과를 달성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의 노력을 통해 지구 차원의 문제를 일부 해결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MDGs는 많은 UN의 회원국 정상들이 개발과 관련한 최상위 국제규범으로 목표를 합의해 도출했으나 시민사회 및 전문가 참여는 부족했다. 또한, 목표 수립 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립 과정 없이 UN 등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 리더십과 일부 관료와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제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하향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초기에 MDGs의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개발도상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아젠다 수립에 있어서 MDGs에 공여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차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사회 및 전문가 집단의 뚜렷한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발도상국 현지(field)가 지니는 지리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기에는 부족했다.

둘째, MDGs는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8가지로 제시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하기 편리하지만, 개발의 요소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공여국의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문제를 내포했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이끌어내고 수원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맞게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기아가 야기되는 근본적인 구조적 메커니즘에 접근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목표를 일반적이고 획일적으로 설정하여 분쟁이나 재난을 겪은 취약국가나 내륙국 또는 기후변화에 약한 도서국가의 특수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리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셋째, MDGs는 빈곤을 개발도상국의 문제로 간주하고 불공정한 무역과 금융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공여국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가 취약하였다. 이는 서두에서 말한 ‘지리적 상호연결성’에 대한 인식을 오히려 은폐하는 것이므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특정 지역의 빈곤과 기아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로 국한시켜 휴머니즘이나 범세계주의에 바탕을 둔 연민의 문제로 치환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아울러 빈곤을 좁은 의미의 사회개발 아젠다로 축소하여 인권, 민주적 거버넌스, 환경 및 군축과 평화 등 여러 분야와 접점을 형성하는 이슈들과 정책적 일관성의 중요성이 반영되지 못했다. 그리고 빈곤을 소득과 같은 좁은 의미의 경제적 측면으로 국한하여 빈곤의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 등 다면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넷째, MDGs는 빈곤 퇴치만을 강조하여 양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와 부정부패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오히려 빈곤은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전통 사회에서와 같이 저개발의 상태에서 나타나기보다는, 기존의 토착 경제 구조가 기존의 개발 경로를 이탈하여 급격하고 급속하게 개발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빈곤은 저개발에 상존한다기보다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요악이나 부작용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Ferguson, 1994; Escobar, 1995). 따라서, MDGs에는 빈곤 퇴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이를 위한 사회·경제적 인프라의 중요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개발 원조의 역할, 곧 원조·개발 효과성(effectiveness)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다섯째, MDGs는 각각이 분절적으로 설정되어 목표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 및 시너지를 제고하려는 효과적인 전략과 정책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가

령,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빈곤 및 기아로 드러나는 시급한 문제들이 오히려 일차적으로 여성 및 여아의 인권 보장이나 이들에 대한 교육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경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및 여아의 인권 보장 및 교육 기회 제공보다 빈곤 및 기아가 우선순위가 높은 개발목표로 수립된 경우가 많다. 또한, 개발 대상과 개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결과(output)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목표 및 지표들의 상호관계나 중장기적인 성과와 영향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MDGs의 이행을 성별, 지역별, 분야별로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객관적 통계를 확보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다.

여섯째, MDGs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이 미미한 분야 및 국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8개의 MDGs는 각각이 단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이 중 유기적 관계를 갖는 분야가 (가령, 목표 4, 5, 6에서와 같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분야만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해도 타 분야가 개선되지 않으면 기존의 프로그램도 그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개발 협력 대상 국가 선정 시 MDGs 달성 정도나 빈곤 정도가 주요 선정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관계, 경제협력 가능성 등 경제·외교적 관계가 가장 우선적인 선정 기준이 되고 있는 것도 국가별 노력에서는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MDGs는 부분적인 달성을 이루어졌지만 시간적 목표와 정량적 목표치, 그리고 측정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며 결과 중심의 문화를 시작하였다는 면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개발협력의 '결과 중심' 문화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무조건적으로 막연한 기간 동안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목표를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한 후 체계적인 지원이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해 원조사업 이행 이전에 현재 상황과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선 조사를 시행하고 이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중간 점검을 하는 제도 또한 정착시키며 사업 수행이 보다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했다. 결과 중심 제도는 사업 완료 후 성과 평가를 통하여 교훈을 도출하고 후속 사업

에 반영하는 과정의 변화를 가져오게도 하였다.

MDGs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개발도상국 정부의 국가 발전 목표 수립을 위한 기준점이 되었고, 공여국은 개발도상국 정부의 개발목표의 중점 분야를 존중하여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공동의 노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원조 규모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라는 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MDGs는 개발과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내며 원조 피로(aid fatigue)를 느끼고 있던 국제사회에 개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불러들여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발전이 개별국가의 숙제가 아닌 국제사회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부각시켰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2) SDGs로의 이행이 갖는 기회와 한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DGs가 개발될 때에는 UN 내부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여하였고,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와 같은 문제들까지는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SDGs의 개발 과정에는 UN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정부, 시민사회단체,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개발 과정에서의 민주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특히, 전세계의 주요 시민사회단체(CSO)들은 2010년부터 'Beyond 2015'라는 캠페인을 통해 포스트-2015에 대한 자체적인 비전을 갖고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들은 2012년부터 UN의 SDGs 수립 프로세스에 본격적으로 참여, 활동하였고, 2015년을 기준으로 132개국에서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캠페인을 벌여왔다. 또한, 'action/2015'라는 캠페인 네트워크 또한 전세계적으로 2,20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수립한 조직으로서, 보다 많은 세계 시민들이 기후 변화, 빈곤, 불평등 등의 이슈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포스트-2015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KoFID·KOICA, 2016).

MDGs에서 SDGs로의 위와 같은 이행 프로세스에서의 개방성과 아울러 목표 자체에서도 중요한 가능성과 기회가 제고되었다. 또한, MDGs에서는 개발도상국 내의 빈곤에 초점이 두어져 있었다면, SDGs에서는 선진국 내에서도 나타나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MDGs는 인간기본필요(basic human needs) 개념과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등의 개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빈곤과 기아와 같은 문제를 인간의 경제적 삶에 국한해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SDGs는 이러한 경제적 삶이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삶과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폭력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의 발전과 같은 사회적 진보의 포괄적인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또한, 2030아젠다는 세분화된 데이터(disaggregate data)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의 총량적 지표를 산출하던 기존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성, 연령, 거주지, 인종, 언어, 장애 여부, 사회·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데이터를 여러 선분으로 교차 구축함으로써 개발의 효과를 보다 세밀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또한 매우 고무적이다(KoFID·KOICA,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행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며, 향후 SDGs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 아래에서 간략히 제안하고자 한다.

- (1) 자유주의적 사상에 대한 제한과 한계
SDGs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이라는 아젠다를

통해 부의 불평등이라는 문제와 소비의 불균형과 양극화라는 문제 간의 상호연관성을 보다 바람직하게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선진국 시민들은 개발도상국 시민들에 비해 훨씬 많은 재화, 서비스,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인구 1인당 에너지소비량으로 볼 때 세계 인구 1인당 평균 1,630kg을 소비하는데, 미국의 시민들은 1년에 석유 7,056kg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나이지리아 시민들은 292kg, 콩고는 606kg, 인도는 854kg에 불과하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전지구적 자원 소비의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에너지 공급만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분배, 효율성, 윤리 등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특히 재화, 서비스,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기존의 시장 자유주의적 관념은 전지구적 공존과 형평성이라는 보다 공동체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입장에 의해 견제를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2030아젠다 전문 중 <선언>의 도입부에서는 2030아젠다 행동 계획의 목표가 전지구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적 선결 조건인 빈곤 퇴치를 명시하면서, “빈곤이라는 폭군”으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SDGs는 서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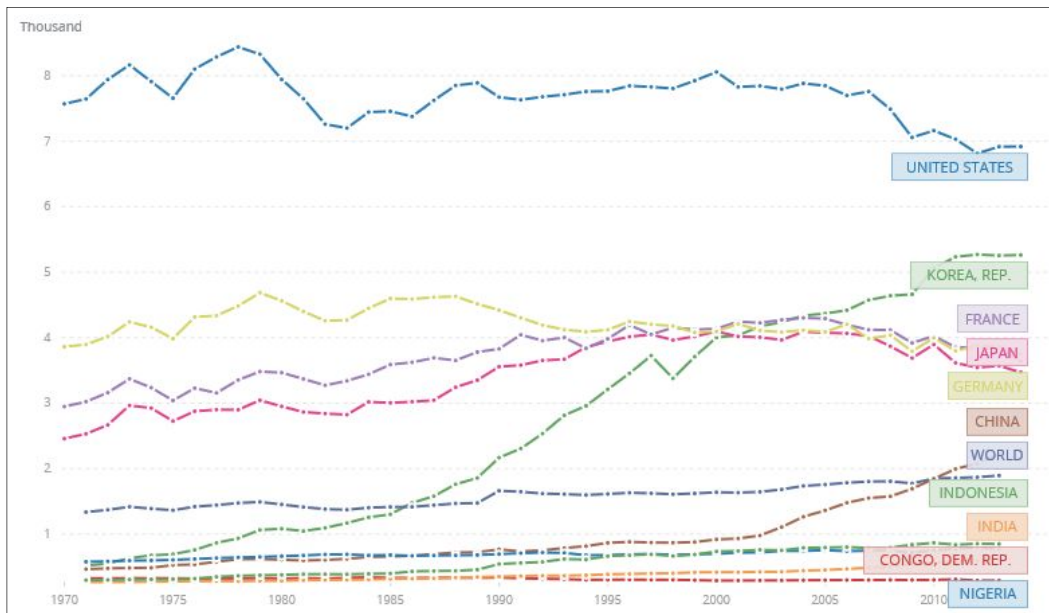


그림 2. 석유(kg)으로 환산한 주요 국가별 인구 1인당 에너지소비량(자료: worldbank.org)

고전적 자유주의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빈곤에 대한 이러한 자유주의적 접근은 오늘날 빈곤이나 기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비판에 대해 침묵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불균등발전 이론이나 종속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부등가교환과 투자 및 금융에 있어서의 종속관계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는 문제시되기 어렵다.

또한, MDGs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빈곤율의 감소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선진국으로부터의 개발 원조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빈곤율이 감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여전히 최빈국을 포함한 아프리카의 많은 개발도상국은 빈곤율에 있어서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임소진, 2016).

(2) 국제개발협력의 신자유주의화인가?

사실 MDGs의 이행에서 가장 취약했던 점은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EU 경제권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선진 공여국들의 재정 상태와 금융 불안이 가중됨

에 따라 ODA 규모에서 큰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그림 4>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요 OECD 국가들은 2000년대에 들어 사실상 ODA/GNI 비율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사회에서는 금융거래세 도입, 부유세 징수, 군사비용 축소, 조세 회피 징계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운영과 보다 엄격한 윤리와 책임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이성훈, 2014).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민관협력의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재원을 늘리는 데에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국제사회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기업의 이윤 추구 방식에 대해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보다 윤리적이고 투명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SDGs를 위한 재원에 있어서 OECD/DAC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의 ODA가 대폭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장치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ODA/GNI 비율로 볼 때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 북서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국제 사회의 권고 수준인 0.7%를 넘어섰지만,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다른 많은 OECD/DAC 회원국은 1970년대부터 4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30아젠다는 선진국으로 하여금 GNI 대비 0.7%의 ODA 공여를,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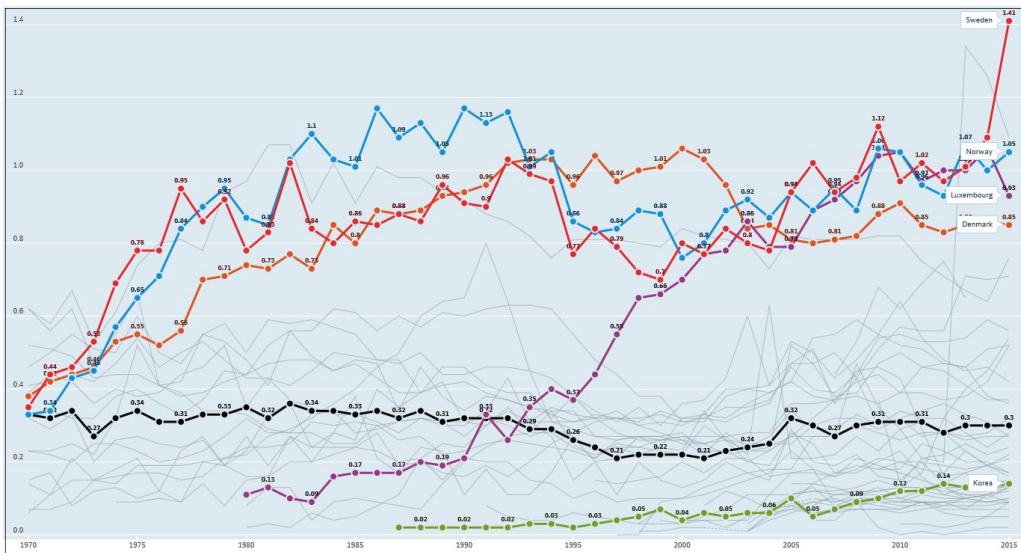


그림 3. OECD 회원국의 ODA/GNI 비율(자료: OECD, 2015)

최빈국에 대해서는 GNI 대비 0.2% 지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공약을 제시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개발의 잠재력 자체가 약한 최빈국에는 절대적으로 미미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2030아젠다는 기업의 대폭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언해왔다. SDGs는 고위급포럼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런 ODA 재원 부족분을 기업으로부터 충당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실제 기업이 얼마나 개발 아젠다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2030아젠다는 41항에서 “소기업에서부터 협동조합과 다국적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간 영역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해당되는 67항은 “민간기업 활동, 투자, 혁신은 생산성 향상과 포괄적 경제 성장의 주요동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68항에서는 “국제 무역은 포괄적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의 동력이고 지속가능개발에 기여한다. 우리는 WTO 하의 보편적, 규칙 기반의, 개방적, 투명한, 예측가능한, 포괄적, 비차별적, 공평한 다자간 무역 체계와 무역 자유화의 증진을 지속할 것이다. ...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대륙 경제 통합 및 상호연결성 증진 등을 포함한 무역 역량 구축을 제 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기업의 투자나 무역을 통한 재원 마련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기업 컨설팅회사인 영국의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사는 2030아젠다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SDGs가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PwC, 2015). 특히, SDGs 중 ③ 모든 연령층의 건강 및 복지 증진, ⑦ 값비싸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보장, ⑧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생산적인 완전 고용, 양질의 일자리 촉진, ⑨ 회복력을 갖춘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업화, 혁신의 추구, ⑫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의 보장, ⑬ 기후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6가지는 기업의 입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회로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PwC, 2015).

(3) 지리적 차이의 중요성

《The Economist》는 169개에 달하는 SDGs 세부 목표를 모세의 10계명에 비유하면서 이는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혹독하게 평가했다(The Economist, 2015a). 이 신문에 따르면 SDGs의 본질적 목적은 세계의 가난한 국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돕는 것이고,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어떠한 정책으로 이들을 돕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SDGs는 빈곤과 기아와 같이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핵심 문제 이외에, 도시화, 인프라, 기후 변화 등 너무나 폭넓은 목표들을 아우르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은 전체 시스템의 불평등과 부정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마치 개발도상국을 ‘진정하게’ 돕기 위해서는 전체 거버넌스를 향상시켜야 하고, 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제도화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수많은 목표들을 달성해야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더군다나 169개의 세부 목표들이 아무런 우선순위가 없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장기적, 전략적, 종합적인 계획 없이 169개의 세부 목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심지어 지속가능한 관광도 SDGs에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지만 정확하게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어떤 행위자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더 많은 목표를 수립해야 더 많은 ODA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2030년까지 ODA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자금만 하더라도 연간 무려 2~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는 연간 세계 총 연간저축액의 15%에 해당되며 세계 GDP의 4%에 해당되는 액수다. 더군다나 OECD에 속한 선진 공여국들은 자국의 GDP 대비 0.7% 공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약속은 1960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6개국 정도를 제외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공약에 불과하다. OECD 국가의 경우 2014년 현재 GNI 대비 ODA 비율은 0.3%에 불과하다(The Economist, 2015a). 더군다나 SDGs의 목표들이 비록 개발도상국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개별 개발도상국이 처한 지리적 현실과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일반화된 목표라는 점에 더 큰 문제점이 있다. SDGs가 추구

하는 방향이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빈곤 및 기아 퇴치라고 한다면, 전 세계의 무역 및 산업 구조의 불균등을 다룰 수 있는 레짐 구축과 아울러 개별 개발도상국이 처해 있는 현실에 적합한 차별화된 목표들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10억 명의 개발도상국 극빈층을 구제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만일 선진국으로부터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공여로서 1년에 최소한 650억 달러면 이들의 빈곤과 기아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650억이라는 공여를 통해서 빈곤 및 기아 퇴치라는 제1 목표를 단숨에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SDGs가 제시한 169개의 세부 목표는 이러한 가장 시급한 목표의 달성을 오히려 지연시키고 있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169개 또한 2014년 초안에 제시되었던 212개에서 대폭 줄어든 것이었다. 또한, SDGs에는 도시화, 인프라, 거버넌스 스탠다드, 소득 불평등, 기후 변화, 그린 에너지, 생물종 보존 등 수많은 아젠다들이 망라되어 있는 '뉴 브레튼우즈 체제'와 같다(The Economist, 2015b). 그러나 1944년의 브레튼우즈 회의에서는 (일본과 독일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었고, (경제 민족주의는 지양되어야 하고 시장 개방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통의 믿음이 있었으며, (무역을 위해 관세를 낮추겠다는) 달갑지 않은 조치를 기꺼이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로 나뉘어져 있어서,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아무런 합의도 없고, 대부분의 국가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희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The Economist, 2015b).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2014년 국제식량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는 SDGs 초안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기아 퇴출을 위해서 UN이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IFPRI는 《야심찬 개발 목표: 2025년까지의 기아 종식과 빈곤 근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베트남, 브라질, 태국이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결합해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Fan and Polman, 2014).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위 국가들은 식량 부족을 해결하고 아동 영양실조와 저성장 비율을 크게 낮추는 데에 모두 성공했지만 그 방식은 각 국가적 상황에

따라 달랐다. 가령, 중국과 베트남은 농업 기반을 강력하게 확대하는 정책을 추구하여 성공했고, 브라질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하여 충분한 영양공급을 달성했으며, 태국은 농업 기반 확대 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하면서 핵심 목표 집단에 대한 영양공급을 병행했다(Fan and Polman, 2014). 또한,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GDP 성장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세계 그 자체의 생태적 목적을 침해하는 자가당착적 계획일 수밖에 없다. 또한, 1일 1.25달러를 빈곤선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일 소득 기준이 5달러로 높아져야 한다고 본다.²⁾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 자체도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증가를 안정화하거나 환경적 조화를 추구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SDGs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UN은 2015년 UN 총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지표를 평가해 줄 것을 국제과학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CSU)와 국제사회과학위원회(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 ISSC)에 요청했다. 21개국에서 40명 이상의 학자들이 참여한 이 보고서는 SDGs가 제시한 목표와 지표들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평가했다. 검토의 기준으로는 현행의 국제적 합의 및 과정에 대한 부합성, 실행가능성, 측정가능성의 3가지였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169개의 세부목표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잘 개발된 목표는 49개(29%)였고, 보다 뚜렷해야 할 목표는 91개(54%)였으며, 나머지 29개(17%)는 충분한 재검토를 요하는 것들로 분류했다. 이 보고서는 몇 가지 제안 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ICSU & ISSU, 2015). 첫째, 모든 목표와 세부목표를 포괄하면서도 SDGs의 최종적인 목적을 포괄하는 목표가 없다. 둘째, 서로 다른 목표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상호 관련성이 있는 세부목표들을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설득력 있는 개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넷째, 17개의 목표를 서로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로 범주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부목표는 측정가능하고 관리가능하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보고는 지속가능목표는 많지만

이러한 목표들 간의 상관관계나, 이 목표들이 어떠한 지리적 다양성을 담고 있는가를 비판하고 있다.

(4)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포스트식민 정치

개발과 관련된 많은 용어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분법을 비롯하여) 여전히 개발에 대한 선형적 관념, 이른바 ‘저개발 지역’에 대한 식민주의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SDGs는 여전히 개발과 개발이 가져올 미래 세계에 대한 낙관론에 근거하고 있지만, 빈곤과 기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결국 개발로 인해서 (개발이라는 것이 실패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Ferguson, 1994).

특히,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정부 관료나 전문가와 같은 엘리트 계급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들이 대변하고자 하는 빈곤과 기아에 처해 있는 하위계급 자신들의 목소리가 실제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이 추구하려는 아젠다는 이러한 포스트식민주적 사고에 입각하여 개발 이론의 국지화(localization)와 아울러 로컬 토착민이 행위주체성을 갖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Sylvester, 1999). 이런 측면에서 많은 이론가들은 개발이 실패하는 주요 이유가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지식을 경청하지 않은 데에 있다고 지적한다. 곧, 개발은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에 의하여 가난한 국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행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영민·박경환 역, 2011). 따라서 빈곤과 기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그 곳에 거주하는 토착 주민들의 가치 체계, 생활방식, 문화적 태도 등이 충분히 고려, 반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동안 그들이 모진 환경에 적응해 온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서양의 (또는 개발도상국의 관료나 엘리트를 포함한) 소위 ‘전문가들’이 배울 수 있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포스트식민적 관심이 개발의 실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이영민·박경환 역, 2011).

이러한 토착민의 목소리와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존 브릭스와 조앤 샤프(John Briggs and Joanne Sharp, 2004)의 이집트 남부의 베두인족에 대한 연구는 토착민들의 환경 인식이 서양의 개발 인식과 ‘급진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잘 보여

준 바 있다. 서양의 개발 관점은 공간을 여러 경계들로 구획할 수 있다는 관점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베두인족의 토지에 대한 경계는 강수와 기온 등 환경적 요인과 토지 자원에 대한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가변적이고 유연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충분한 강수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식생의 토지 밀도가 높으면 토지의 경계는 좁아지는 반면, 건기에는 보다 넓은 범위로 공동체의 토지 영역이 확대되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생활 영역도 함께 확대된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인식도 시간 스케일에 따라 달라서 북아프리카 지역의 기후 특성상 가뭄이 수년 이상의 장기적인 스케일에서 인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발 정책 또한 장기적인 시간 스케일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처럼 어떤 개발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토착 인식과 지식이 포괄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포스트식민적 맥락에서 2030아젠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비판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의 국제적 상호연결성의 확대가 의학에서부터 에너지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과학 및 기술의 혁신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인간의 진보가 가속화되고, 정보 격차가 좁혀지면, 지식 사회가 발전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전히 지식 및 과학이라는 용어를 탈정치화하고 서양중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이 배어있다.

또한, 9번 목표인 인프라, 산업 및 혁신과 관련해서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 개발도상국에서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혁신 확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69항은 SDGs 달성을 위해 각 지역 및 국가에서의 과학, 기술, 지식, 혁신적인 정책이나 매커니즘 등을 서로 교환해서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지식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다양한 성공 사례와 교환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활용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6년 12월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 지식 플랫폼’이라는 명칭으로 온라인으로 개설되어 있고(<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이를 책임지는 부서는 UN 경제사회부(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산하의 지속

가능개발부(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DESA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고위급 정치 포럼(HLPF) 회의를 총괄하며, 이를 통해 17개의 SDGs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이루어져 있는 2030아젠다의 달성을 모니터링하고 제언을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온라인 플랫폼이 과연 개발도상국, 특히 사회 및 경제적 인프라가 발달되지 못한 최빈국의 주민들이나 활동가들에게 어느 정도 접근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이 플랫폼을 통해 유통, 공유되는 지식이 토착민의 로컬 지식으로부터 공식화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공식화된 형태의 지식이 어느 정도 로컬의 차이와 특수성을 반영할 것이며 이를 다른 지역이나 사례에 적용할 때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은 DAC를 중심으로 한 서양 공여국들의 ODA 실행이 수원국에 까다로운 정치적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위계적이며 식민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자국의 ODA를 공동발전과 상호이익에 부합하는 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ODA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유경(2016)의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 ODA의 경우 대개 해외직접투자나 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개발원조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비교할 때 점차 기업 주도의 원조와 투자가 지배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ODA 정책은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면서 토지와 해양의 전유, 노동력 착취,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내 과잉생산과 산업구조재편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한 중국 기업의 공격적 개발투자는 수여국의 지속적 발전보다는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다분히 중상주의적 경제전략(economic statecraft)에 가깝다”(여유경, 2016, 262). 이런 점에서 중국과 같은 비(非)OECD/DAC 국가의 다분히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개발협력이 SDGs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또는 반대로 장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빈곤과 기아, 질병과 위생, 여성 인권, 보편 교육, 환경적 위

협 등의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 문제는 분명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경제적,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1960년대 이후 이러한 ‘지리적 상호연결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는 MDGs와 SDGs로 집약되어 왔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양자가 구성된 배경과 프로세스, 내용 구조의 목표와 특징, 그리고 달성의 결과 및 비전이 지니는 기회와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MDGs는 UN이 OECD/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 낸 공여국 공동의 원조 로드맵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MDGs는 정치적, 외교적 목적과 국제 이해관계를 토대로 양자 간 원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는 대신, 과거 식민 지배국으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오늘날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선진국으로서의 인도주의적 윤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결과적 측면에서 MDGs는 절대 빈곤 및 기아 종식, 보편 초등교육 달성, 전염병 및 질병 퇴치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영아사망률 감소, 모성 보건 증진 등 다른 부문에서는 목표 달성이 미진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동아시아와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남아시아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한편, 2015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SDGs는 빈곤과 기아를 포함한 많은 글로벌 문제들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포괄적인 틀에서 달성하겠다는 프레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MDGs가 개발도상국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반면, SDGs는 중간 소득 국가까지도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빈곤과 불평등까지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재원의 측면에서도 과거에 OECD/DAC 국가들의 ODA에 주로 의존했던 것과 달리, 민간 재원의 대폭적인 확충, 개발협력에 대한 기업의 투자 독려, 투자와 교역을 통한 재원 확충 및 원조 등 상당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목표의 이행은 개발도상국과 중간 소득 국가들의 빈곤한 지역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이행이 갖는 위험성과 한계점도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30아젠다가 기존의 시장중심적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기아와 빈곤 퇴치와 같은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많은 기회를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기아와 같은 로컬 문제들을 글로벌화에 따른 구조적 산물로 인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SDGs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더 이상 ODA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민간 부문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점은 단기적으로 재원을 확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본질적 목적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국제개발협력을 비즈니스 확대 기회로 전유시키지 않기 위한 여러 장치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전히 OECD/DAC의 ODA 공여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며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2030아젠다가 제시하는 17개의 목표가 장기적, 전략적, 종합적 계획이 취약한 가운데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고 중복성이 강하고, 목표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나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 자체의 느슨함으로 인해 자칫 개발도상국의 문제가 지니는 중요성이 반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분명, SDGs에는 로컬 상황에 따른 다양한 지리적 차이들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목표들의 우선순위가 지역별, 국가별로 차별화되어야 하고 목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나 예측 또한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식민주의적 입장에서 2030아젠다가 제시하는 많은 개발 관련 조항들이 유럽·북아메리카 중심주의, 진보에 대한 선형적 역사관, 토착지식에 대한 서양 '과학'의 우월주의, 엘리트 중심주의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SDGs는 UN뿐만 아니라 WTO, 국제금융기구 등이 주도해 나가는 국제 사회 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며, 이의 영향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SDGs를 중간 소득 국가로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어떻게 구현, 실행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그리고 반대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여국으로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처한 지리적 여건에서 SDGs의 달성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

가 있다.

주

- 1) 추가된 세부목표/대상 4개는 1B, 5B, 6B, 7B이며, 삭제된 대상은 목표8의 대상 중 하나였던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알맞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 2) 2008년에 1.25달러로 높였다가, 세계은행은 15개의 빈곤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1인당 빈곤선을 2015년 10월부터 1.90달러로 조정했다.

문헌

- 김수진, 2016,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과 이슈: MDGs와 SDGs 체제 비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강의자료.
- 박경환·윤희주, 2015, 개발지리학과 국제개발협력(IDC)의 부상,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3), 19-43.
- 박경환·이영민·이용균 역, 2016, 공간을 위하여, 심산, 서울(Massey, D., 2005, *For Space*, Sage, London).
- 박성우, 2016,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해외원조의 윤리적 토대, 평화연구, 24(1), 5-41.
- 배진수·강성호·한희정, 2006, 유엔 MDGs(천년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추진 전략 및 기여 방안, 한국국제협력단, 서울.
- 여유경, 2016, 중국식 개발원조의 등장: 역사적 변화와 특색, 『개발협력의 세계정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서울, 사회평론, 224-270.
- 오정화·박영실, 2015, 2030 지속가능발전아젠다에 대한 국가통계 대응방안 수립, 통계개발원 연구보고서.
- 우동완·조아영, 2009, 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단 정책 및 지원사업 이행현황 종합평가, 한국국제협력단.
- 이성훈, 2014, Post-2015 개발 아젠다란 무엇인가: 한국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민간위원회·국제개발협력시민포럼·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서울.
- 이영민·박경환 역, 2011, 포스트식민주의의 지리: 권력과 재현의 공간, 서울, 여이연(Sharp, J., 2009, *Geographies of Postcolonialism: Spaces of*

- Power and Representation*, Sage, London)
- 임소진, 2016, 국제개발협력 최근 동향과 이슈, KOICA ODA 교육원 편,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시공미디어, 서울, 151-226.
- 한국국제협력단, 2013, 국제개발협력의 이해(개정판), 한울아카데미, 서울.
- 한국국제협력단, 2014, 개발학 강의, 푸른숲, 서울.
- 한국국제협력단, 2015, 한국의 개발원조, <http://koica.go.kr>
- ODA Watch 실행위원회, 2010,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대한 불편한 진실, ODA Watch, 45, 1-4.
- KoFID·KOICA, 2016,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action/2015 Korea,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서울.
- Anderson, B.,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London.
- Briggs, J. and Sharp, J., 2004, Indigenous knowledges and development: a postcolonial caution, *Third World Quarterly*, 25(4), 661-76.
- Economist, 2015a, *The 169 Commandments*, Mar 28th, Leaders Edition.
- Economist, 2015b, *Unsustainable Goals*, Mar 28th, International Edition.
- Escobar, A., 1995, *Encountering Development: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Third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NJ: Princeton.
- Fan, S. and P. Polman, 2014, *An Ambitious Development Goal: Ending Hunger and Undernutrition by 2025*,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 Ferguson, J., 1994, *The Anti-Politics Machine: Development, Depoliticization, and Bureaucratic Power in Lesotho*,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N: Minneapolis.
- Hobsbaum, E., 1983,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ICSU) and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ISSC), 2015, *Review of Target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Science Perspective*, Paris,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ICSU).
- James, J., 2006, Misguided Investments in Meetin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reconsideration using ends-based targets, *Third World Quarterly*, 27(3), 443-458.
- Poku, N. and Whitman, J., 201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challenges, prospects and opportunities, *Third World Quarterly*, 32(1), 3-8.
- PricewaterhouseCoopers(PwC), 2015, *Make it Your Business: Engaging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www.pwc.com/sdg>).
- Rigg, J., 2014,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V. Desai and R. Potter (eds.), *The Companion to Development Studies*, third edition, Routledge, London, 67-73.
- Sylvester, C., 1999, Development studies and postcolonial studies: disparate tales of the 'Third World', *Third World Quarterly*, 29(4), 703-21.
-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2, *The Future We Want*, New York,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2015a, *Human Development Report 2015: Work for Human Development*, United Nations, New York.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2015b, *A New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mdgoverview>, United Nations, New York.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1, *Human Development Report 2015: Sustainability and Equity - A Better Future for All*, New York, United Nations.
- United Nations, 2012,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Report to the Secretary-General*, 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June, 2012. United Nations, New York.
- United Nations, 2013a, *A life of dignity for all:*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이행: 그 기회와 한계

-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ited Nations, New York.
- United Nations, 2013b,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13*,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New York.
- United Nations, 2014, *Open Working Group Propos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ited Nations, New York.
- United Nations, 2015a, *New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United Nations, New York.
- United Nations, 2015b, *New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15 Progress Chart*, United Nations, New York.
- United Nations, 2015c, *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New York.
- World Bank Open Data, <http://data.worldbank.org>(2016년 11월 10일 접속).
- 교신 : 박경환(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kpark3@gmail.com, 전화: 062-530-2385)
- Correspondence : Park, Kyonghwan(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ongbong-ro 77, Buk-gu, Gwangju 61186, Republic of Korea)(E-mail: kpark3@gmail.com, Tel: +82-62-530-2385)
- (접수: 2017.01.02, 수정: 2017.02.10, 채택: 2017.02.10)